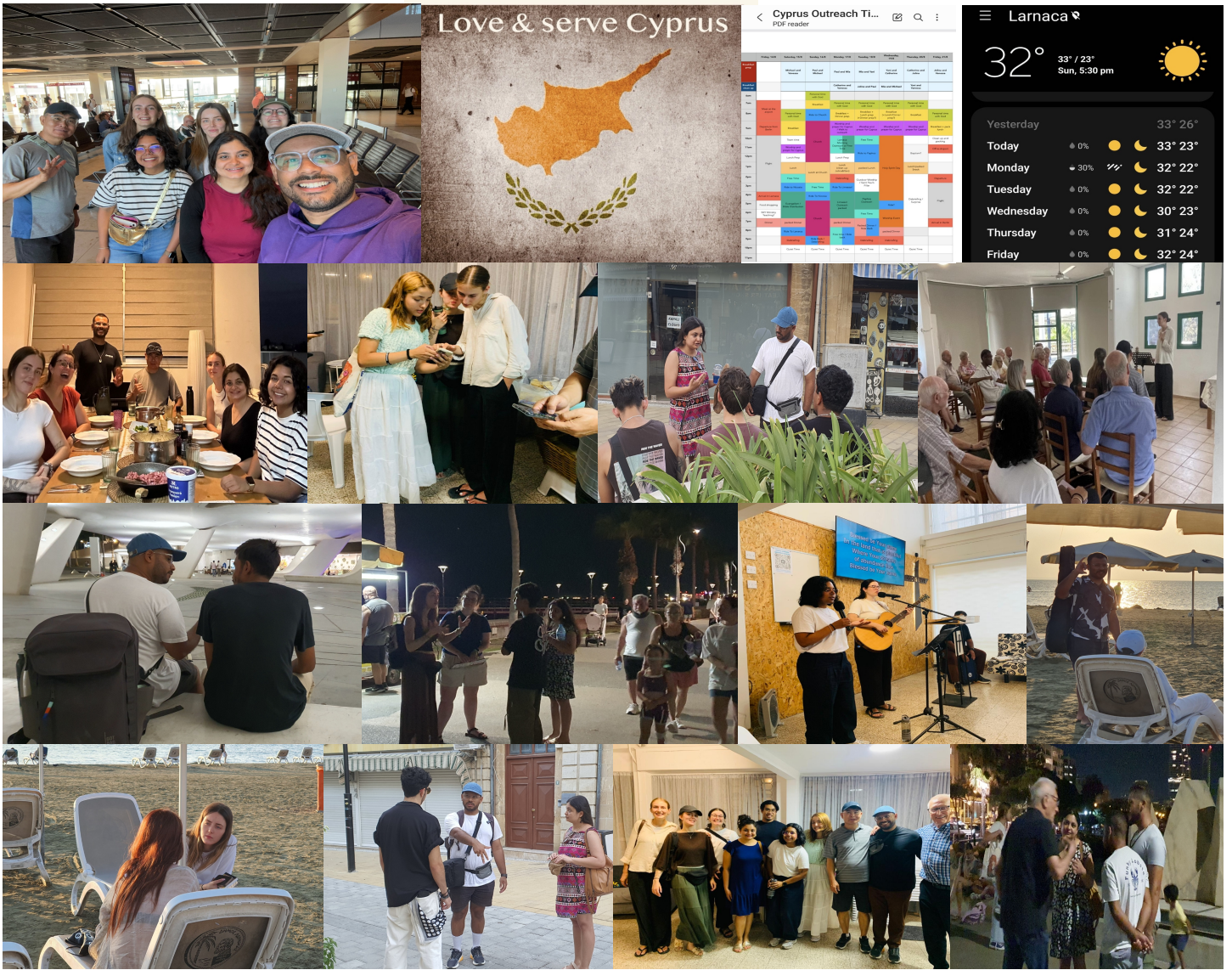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Love & Serve Cyprus 2026(사랑과 섬김 키프로스 아웃리치 2026 / 8월 14-21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한 여름의 키프로스는 저희가 도착한 날 섭씨 34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고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연결된 현지 교회 예배 찬양인도와 간증 등으로 두 교회를 섬겼고, 수요일에는 현지교회 거리 전도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안가 거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루어진 올해 아웃리치 팀의 8일간의 키프로스 선교 일정을 통해 116권의 성경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중 25명이 무슬림, 6명이 힌두교인, 1명이 불교, 1명이 뉴에이지 추종자였습니다. 또한 3명은 우리의 인도를 따라 현지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는 이전에 한번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 온 적이 없는 팀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아웃리치를 마친후 복음을 전하는데 담력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한 이상으로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중 또 다른 한 명은 이전에 이런저런 전도행사나 선교사역에 참여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돌파에 감사해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키프로스에서 저희들은 현지인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혹은 일을 하려고 온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추수밭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두 십대 아이들은 잃어버린 열쇠더미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러시아계 이민자들로 그곳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정교회를 따르는 교인이라고 했지만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명 모두 집에 성경이 한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 아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 동역이 있어서 이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야할 일들이 많은 제 대신 주 리더가 되어 섬긴 마이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매년 키프로스를 방문해 이렇게 섬길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